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수성구의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suseongcouncil.suseong.kr](http://www.suseongcouncil.suseong.kr)

주민과 함께하는 수성구의회

# 수성구 의회소식

통권 제62호



# | 제9대 수성구의회 의원 현황 |

의장

전영태  
범어1,4동/  
황금1,2동



부의장

김경민  
수성1,2·3,4가동/  
중동/상동/두산동



##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균  
만촌2,3동



부위원장 배광호  
고산1,2,3동



위원 박영숙  
범어1,4동/  
황금1,2동



위원 정대현  
범어1,4동/  
황금1,2동



위원 김재현  
파동/지산1,2동/  
범물1,2동



위원 박새롬  
파동/지산1,2동/  
범물1,2동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현민  
수성1,2·3,4가동/  
중동/상동/두산동



부위원장 박영숙  
범어1,4동/  
황금1,2동



위원 최진태  
만촌2,3동



위원 황혜진  
고산1,2,3동



위원 조규화  
수성1,2·3,4가동/  
중동/상동/두산동



위원 홍경임  
수성1,2·3,4가동/  
중동/상동/두산동

##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정호  
범어2,3동/  
만촌1동



부위원장 박새롬  
파동/지산1,2동/  
범물1,2동



위원 정대현  
범어1,4동/  
황금1,2동



위원 정경은  
파동/지산1,2동/  
범물1,2동



위원 백지은  
비례



위원 최현숙  
비례

##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충배  
파동/지산1,2동/  
범물1,2동



부위원장 김재현  
파동/지산1,2동/  
범물1,2동



위원 김희섭  
범어2,3동/  
만촌1동



위원 황치모  
고산1,2,3동



위원 김소은  
수성1,2·3,4가동/  
중동/상동/두산동



위원 최명숙  
비례



수성구 의회소식 2023. 7. vol.62

C O N T E N T

인사말	04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05
주요안건 처리현황	08
-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	
구정질문·답변	19
5분자유발언	26
알림마당	37

발행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편집위원장 김경민 부의장  
 편집위원 배광호, 박영숙, 박새롬, 김재현 의원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전화 053.666.2065  
 팩스 053.666.2069  
 홈페이지 www.suseongcouncil.suseong.kr



##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희생 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성구의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많은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의 고민을 청취하기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7월 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제9대 수성구의회가 어느덧 개원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수성구의회는 소통하는 열린 의회,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 일하는 희망의회를 목표로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성구의회는 주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이 주민의 이익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손과 발을 맞추어 행복하고 안전한 수성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여러가지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로 문제점이나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 등 발전적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예산 및 시책 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각종 전염병과 집단 식중독,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56회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  
(2023. 6. 1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의장 전 영 태

4월 14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수성구의의회는 4월 14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할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였다. 결산검사위원들은 5월 3일까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4월 29일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 선언 및 서명운동 전개**

수성구의의회는 4월 29일 수성못 관광안내소 앞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선언하고 수성못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수성구의의회에서는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시와 수성구청과 협력하여 수성못 소유권 반환에 앞장서고 있다.

5월 2일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  
개소식 참석**

수성구의의회는 5월 2일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였다. 고산 권역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전 연령 소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쉼터로서 시 낭송, 창의 가베, 뮤지컬 영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5월 4일



**수성구-의성군  
자매결연 협약식 참석**

수성구의의회는 5월 4일 의성군청에서 개최된 수성구-의성군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협약은 양지자체의 상호 이해와 친선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5월 9일



**자치경찰제 시행관련 특강 실시**

수성구의회는 5월 9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시민안전과 자치경찰”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의 업무범위, 실제 주민생활 적용 사례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불축법요식 참석**

수성구의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수성구청 광장에서 열린 불축법요식에 참석하였다. 참석의원들은 부처님이 설파하신 자비의 정신을 되새기며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였다.

5월 22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개최**

수성구의회는 5월 22일 사회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수성구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외 우수 문화·관광사업을 수성구에 적용하는 방안과 특색있는 거리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지역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참석자와 전문가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6월 1일



**정책지원관 추가 임용**

수성구의회는 6월 1일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3명을 추가 임용하였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결산안 심의 및 의정 자료의 수집·분석 등 구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6월 6일



**나야대령기념비 참배 행사 참석**

수성구의회는 6월 6일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범여동 나아 대령기념비 참배 행사에 참석하였다. 참석의원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용사들 영전에 명복을 빌었다.

6월 14일



**사회복지위원회 '노인학대 예방 챌린지' 동참**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는 6월 14일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 학대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인학대 예방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6월 20일



**고산지역 우박피해 농가 현장 방문**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는 6월 20일 우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지난 14일 16시경 대구 수성구 고산지역(성동, 매호동, 사월동) 일원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강한 비와 1cm크기의 우박이 쏟아져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6월 26일



**'예산결산심사 및 자치법규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수성구의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 '수성구 예산결산심사 및 자치법규 연구회(회장 홍경임 의원)'는 6월 26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예산결산 및 자치법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수성구 예산결산심사 및 자치법규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예산결산심사 사례분석, 자치법규 정비방안 연구 등을 통해 의회 예산결산 심사 역량강화와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255회 임시회(5. 9. ~ 5. 16. : 8일간)

제256회 제1차 정례회(6. 12. ~ 6. 26. : 15일간)

### 제255회 임시회

#### ▶ 제1차 본회의(2023.5.9.)에서는

- 5분 자유발언(정대현 의원, 박충배 의원, 김재현 의원)
- 제25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의 의안을 의결하였다.

#### ▶ 제2차 본회의(2023.5.16.)에서는

- 5분 자유발언(최현숙 의원, 박영숙 의원, 차현민 의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숙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민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망월지생태교육관(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치모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변경 위탁 동의안
-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의 의안을 의결하였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였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남정호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백지은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대현 의원 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김경민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 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박충배 의원 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
-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건 등의 의안을 의결하였다.

## 제256회 제1차 정례회

### ▶ 제1차 본회의(2023.6.12.)에서는

- 5분 자유발언(배광호 의원, 조규화 의원)
- 제2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의 의안을 의결하였다.

### ▶ 제2차 본회의(2023.6.16.)에서는

- 5분 자유발언(박충배 의원, 정경은 의원, 김경민 의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대현 의원 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새롬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조규화 의원 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정호 의원 대표발의)

### ▶ 제3차 본회의(2023.6.26.)에서는

-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구청에 관한 질문(정경은 의원, 박영숙 의원, 정대현 의원)
-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수성구의회 제9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 등의 의안을 의결하였다.



# 운 / 영 / 위 / 원 / 회

위원장 김중군



## 제255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원안가결**

## 제256회 제1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 **원안가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김중군 위원장**

제255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에서 앞으로 구의원들이 조례, 5분발언, 구정질의 등 각종 자료 요구 시에는 각 상임위 전문위원을 통하고, 전문위원은 상임위별 정책지원관들에게 업무가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를 요청함.



**김재현 위원**

2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결산 승인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 전 재정 전망과 그에 따른 세입, 세출이 재정운용 방향성에 맞게 되었는가를 근거로 기준을 잘 잡아서 결산 승인을 해 주기를 요청함.



**박새롬 위원**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결산 심사에서 앞으로 세입 수납액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반영하여 세출에 포함될 수 있게 노력해 주길 당부함.



**배광호 부위원장**

제255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에서 정책 지원팀 신설의 적극검토를 요청함.



**정대현 위원**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결산 심사에서 새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이 의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당부함.



**박영숙 위원**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결산 심사에서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적정액을 편성하도록 하고, 추경을 적절히 하여 연말에 집행잔액을 줄이기를 당부함.



# 행 / 정 / 자 / 치 / 위 / 원 / 회

위원장 차현민

## 제255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숙 의원 대표발의) **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256회 제1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새롬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조규화 의원 발의) **수정가결**
-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원안가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차현민 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청 전체의 예산을 총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상 미집행 잔액을 관련 사항 등을 추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분석 하길 당부함.



**박영숙 부위원장**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 예산이 작년에도 이월이 됐는데 올해는 집행을 잘 하여 하반기에는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함.



**최진태 위원**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머지않아 자치경찰이 생기면 언젠가 우리 구청 산하에 운영이 된다는 걸 염두에 뒤편서 지금 현실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로 내다볼 수 있는 안목으로 행정을 해주기를 당부함.



**배광호 위원**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비 부정수급에 대해 보고 받기를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에서 5년동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함.



**황혜진 위원**

부서에서 사업이 굉장히 많고 원활한 예산집행이 안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진행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당부함.



**조규화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세입과목 착오로 인해서 환급이 2건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 착오 없도록 면밀하게 집행해 주기를 당부함.



**홍경임 위원**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실적 미달이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원인을 파악해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함.



# 사 / 회 / 복 / 지 / 위 / 원 / 회

위원장 남정호

## 제255회 임시회

- 수성구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 위탁 보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민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원안가결**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교육관(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 **원안가결**

## 제256회 제1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남정호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백지은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경민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남정호 위원장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조례안 심사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하여 맨발걷기 중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등 맨발걷기 활성화에 힘써주길 요청함.



박새롬 부위원장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결산 심사에서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하여 올해 지출잔액을 내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성공적인 수성못 페스티벌이 개최될 수 있게 홍보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함.



정대현 위원

제255회 임시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청 차원에서 사업을 잘 진행하여 망월지가 수성구만의 생태환경으로 잘 복원되기를 당부함.



김경민 위원

제255회 임시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감시나 지원 등을 잘 해 주기를 당부함.



정경은 위원

제255회 임시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 생태교육관 건립이 추가 되기보다는 망월지 생태 복원이 우선되어 잘 진행하기를 당부함.



백지은 위원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결산 심사에서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사업 운영 관련하여 공연 중 냉방기 소음으로 불편 민원을 지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 조치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함.



최현숙 위원

제255회 임시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 제개정 시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함.



#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충배

## 제255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 **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기타의견(교통영향평가 통과 및 건축 심의 접수 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해제(안)에 대해 연장이 필요함)

## 제256회 제1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박충배 의원 발의)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찬성의견**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박충배 위원장**

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인도가 차도로 이용되는 곳들의 사고위험성이 크므로 자전거도로, 인도의 통행 안정성을 최우선 확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함.



**김재현 부위원장**

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함.



**김희섭 위원**

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폐공가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방법 검토와 폐공가 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함.



**김중군 위원**

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학교 주변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주차과태료 등의 세수를 통해 주차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함.



**황치모 위원**

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통학로의 차도분리 등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 해주기를 당부함.



**김소은 위원**

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호1지구배수펌프장 조기 건설과 많은 주민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당부함.



**최명숙 위원**

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천을산의 정비사업 추진 시 안전 사고에 주의하고 폭우에 의해 가로수 전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함.



# 예 / 산 / 결 / 산 / 특 / 별 / 위 / 원 / 회

위원장 **최현숙**



## 제256회 제1차 정례회

-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원안가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3

활동기간 2023. 7. 1. ~ 2024. 6. 30

위원장 박새롬 의원 / 부위원장 황치모 의원 / 위원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의원



위원장  
**최현숙**



부위원장  
**황혜진**



위원  
**박영숙**



위원  
**최진태**



위원  
**정대현**



위원  
**김경민**



위원  
**김희섭**



위원  
**황치모**



위원  
**김소은**





박영숙 의원



제255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의의원 : 박영숙 의원
- 찬성의원 : 정대현, 김경민, 김소은, 차현민 의원
-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상향하고자 함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 발의의원 : 박영숙 의원
- 찬성의원 : 김소은, 김경민, 황혜진, 차현민 의원
-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의 활성화를 위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지역회의 위원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연임제한을 풀어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배광호 의원



제255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의의원 : 배광호 의원
- 찬성의원 : 박충배, 김중군, 남정호, 정대현 의원
- 제안이유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 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나아가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남정호 의원



제255회 임시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의의원 : 남정호 의원
- 찬성의원 : 최현숙, 조규화, 김소은, 박충배, 배광호, 김중군 의원
- 제안이유 : 수성구 대표 관광시설인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남 정 호 의원



제255회 임시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

■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의의원 : 남정호, 김중군 의원
- 찬성의원 : 최현숙, 조규화, 김희섭, 최명숙, 백지은, 황치모, 정대현, 정경은, 배광호 의원
- 제안이유 :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구기종목의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주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의의원 : 남정호, 정경은 의원
- 찬성의원 : 최현숙, 조규화, 김희섭, 최명숙, 백지은, 황치모, 정대현, 김중군, 배광호 의원
- 제안이유 :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고,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의 개정으로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명칭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도 이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의의원 : 남정호, 정경은 의원
- 찬성의원 : 최현숙, 조규화, 김희섭, 최명숙, 백지은, 황치모, 정대현, 김중군, 배광호 의원
- 제안이유 :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최 현 숙 의원



제255회 임시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의의원 : 최현숙 의원
- 찬성의원 : 남정호, 조규화, 김소은, 황치모, 정대현, 배광호, 박충배 의원
- 제안이유 : 수성구에 거주하는 우수장애인 선수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 및 선수 선발·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한 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의의원 : 최현숙 의원
- 찬성의원 : 남정호, 조규화, 김희섭, 정대현, 배광호, 황치모, 김중군 의원
- 제안이유 : 수성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 경 민 의원



제255회 임시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의의원 : 김경민, 황치모 의원
- 찬성의원 : 박영숙, 김소은, 조규화, 박새롬 의원
- 제안이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송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 경 민 의원



제255회 임시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발의의원 : 김경민, 황치모 의원
- 찬성의원 : 백지은, 정경은, 박새롬 의원
-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성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박 충 배 의원



제255회 임시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의의원 : 박충배 의원
- 찬성의원 : 황치모, 김희섭, 최현숙, 최명숙, 남정호, 정대현, 백지은, 정경은 의원
-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등 협력과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발의의원 : 박충배 의원
- 찬성의원 : 황치모, 김희섭, 김중균, 김재현, 배광호 의원
- 제안이유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으로 고통을 받는 수성구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난임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황 치 모 의원



제255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의의원 : 황치모 의원
- 찬성의원 : 김재현, 조규화, 최명숙, 김경민, 박충배, 김소은, 김희섭, 최현숙 의원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관람객 500명이상 1,000명 미만 소규모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의의원 : 황치모 의원
- 찬성의원 : 김경민, 박충배, 김소은, 김희섭, 최현숙, 최명숙 의원
- 제안이유 :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정대현 의원



제256회 제1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의의원 : 정대현 의원
- 찬성의원 : 박새롬, 남정호, 배광호, 김중군, 박충배 의원
- 제안이유 : 수성구 타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코자 함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의의원 : 정대현 의원
- 찬성의원 : 김중군, 백지은, 남정호, 황치모, 정경은 의원
-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새롬 의원



제256회 제1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발의의원 : 박새롬, 김경민 의원
- 찬성의원 : 정대현, 최현숙, 홍경임, 조규화, 정경은, 차현민 의원
-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조규화 의원



제256회 제1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수정가결**

- 발의의원 : 조규화 의원
- 찬성의원 : 남정호, 최현숙, 황치모, 최명숙, 정대현, 홍경임, 박새롬, 정경은 의원
-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함

백지은 의원



제256회 제1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발의의원 : 백지은, 김중군 의원
- 찬성의원 : 정대현, 남정호, 정경은, 황치모 의원
- 제안이유 :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병역 복무에 동기를 부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

제256회 제3차 본회의 6. 26. 월요일

## 문화도시 수성구가 나아갈 방향은?

정 경 은 의원

더불어민주당,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



### 질의 정경은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수성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진행사항과 추진방향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성구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2020년 4월 문화도시 추진단을 출범하였으며, 2021년 대구에서 가장 앞서 문화도시 센터를 만들고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준비했습니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하며,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도시별 특성에 따라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고 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비 문화도시는 바로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도전인 2021년도 3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교육 너머 문화’라는 비전으로 2022년도 4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에 재도전했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이들과 지역 주민 등 문화도시를 목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기울였던 여러 사람은 예비 문화도시 지정 탈락이라는 결과에 매우 안타까워했으며 재도전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에 아쉬워했습니다. 이후 수성구는 문화도시 공모에 재도전하지는 않지만 준비과정에서 해오던 사업들을 지속해서 해 나가는 등 ‘수성구형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기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8대 의회에서 문화도시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이마저도 주춤하다가 9대 의회가 다시 구성되면서 추경 때 예산을 다시 편성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올해 다시 문화도시 공모에 도전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도시 공모 사업은 많은 지자체가 도전했다가 탈락하는 등 쉽지 않은 사업이며, 준비과정은 물론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다시 도전한다는

소식에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수성구형 문화도시 조성과 함께 법정 문화도시를 향한 노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문화도시 센터장이 타 도시의 문화재단으로 자리를 옮겨갔으며 현재까지 공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어왔으며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센터장이 왜 사임했으며, 그 자리가 지금까지 비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현 정부 들어 법정 문화도시 사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를 문화도시 1단계로 보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문화로 지역발전, 문화도시로 문화 매력 국가 선도’라는 비전 아래 제2단계 문화도시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1단계 문화도시가 문화 가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2단계는 권역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7곳 내외를 선도 도시로 지정하고 인근 도시 간 연계망을 강화해 문화발전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와 연대의 2대 가치와 자유로운 문화 창조, 자유로운 문화 누림, 자유로운 문화 혁신, 사람 연대, 정책 연대, 지역 연대 등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잘 알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추진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에 사업을 이끌어갈 수장이 자리를 비우고 없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 11월 초까지 문제부 공모에 신청해야 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 지속 가능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래학자들은 정보화시대 다음에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역사적으로 경제의 중심이 이동하면 쇠퇴하지만 문화예술은 발자취를 남긴다며 문화예술의 중심이었던

곳은 브랜드가 되고, 경제의 중심이었던 곳은 브랜드가 되지 못한  
다고 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수성구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문화도시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 이어져야 하며 그 중심에는 문화 향유의 대상으로서  
가 아니라 문화 주체로서의 시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성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는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첫째, 문화도시 공모 마감까지 4개월 남짓 남았는데 어떤 전략

으로 대응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둘째, 만약 공모에 탈락한다면 이후의 계획은 있는지?

셋째, 그동안 문화도시 공모를 준비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인적 네트  
워크 등의 여러 자산은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의  
강한 열정과 의지, 잠재력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내재한  
에너지가 수성구만의 지역 문화로 잘 분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의 문화도시 핵심요체는 참여입니다. 과정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심사위원들을  
제가 직접 만나고 또 저희들의 문화활동을 어떻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제 선정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점도 있었는데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수성구는 이미  
그 과정들이 다 되어 있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두 번 다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는 쉽지 않겠다. 문화  
적인 자발적 토양이 약한 곳에서 문화적인 실체들을 바깥으로 드러  
나게 하고 그 실체들을 지속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  
도시가 설정되어서 가는 입장에서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형태로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나 많고 또 그러한 자발적 존재들이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주체적인 모양새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데는  
사실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우리는 동아리 형태 그다음에 마을기업 형태 또 조합의 형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형성해 내는 문화적인  
대상들은 그것이 시각예술이든지 공연예술이든지 아니면 교육 플러스  
문화 형태이든지 안 그러면 사업성을 띄고 디자인의 모양을 띄고  
있든지 그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전부 모으고 다시 우리 개인  
들과 그것들을 문화도시라고 뽑아주는 형태로 그것을 재조합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움이 있는데 또 우리가  
갈 방향이 있는데 정부의 방향에 맞추려고 하니까 뭔가 어색한 느낌이  
광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참에 지금 정부의 2단계 문화도시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참여라는 과정 중시보다는 결과, 결과를 중시하게  
되고 특화, 이 지역의 토양에 맞는 특별한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중시  
하게 되면 어떤 문화도시로 변형이 되는데 이것을 뽑는 게 권역별로  
나누면서 우리는 광역시권으로 들어가 있어요. 광역시권으로 들어  
가면 대전, 경기도, 인천시 이런 식으로 광역권으로 들어가면 거기  
에서 하나 정도 뽑는데 이번에는 안 된 광역시가 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우리는 우리 포매이션을 정부 포매이션  
에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성구 문화도시의 형태,  
수성형 문화도시의 형태를 지향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제출해 보자! 약간의 틀에는 맞춰주지만 그대로 제출해서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우리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것을 흘뜨리면서  
정부에 맞춰서 사업 예산을 따기 위한 그런 방법은 선택하지 말자!  
이런 것이 현재 우리의 스탠스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먼저 번에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70억 사업을 정부가 반 대고 우리 지방이  
반 대는데 대구시에서 우리 보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수성구가 스마트 관광도시가 되어서 시범사업을 해서 대구 전체로  
확산시키는 사업을 하자! 그런데 정부가 딱 묶어놓은 그 틀에 들어가면  
전부 온라인사업이에요. 사이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대구시는 우리를  
통해서 대구시 전체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비를 적게 들이면서.  
그래서 우리는 선정이 되어도 우리가 하는 사업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뒤늦게 유지보수비를  
시에서 대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사업은 우리 영역에서 인정을  
해 주겠다 해서 분수 그 다음에 차 이동 수성투어버스 그다음에 우리  
관광지 소개하는 것, 사이버 미술전시관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다 구축했죠. 그러면서 유지보수비의 운영은 대구시에  
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을 그 사업을 하면서 나름  
대로 했는데 그 결과치는 나중에 여수나 다른 지역의 스마트 관광도시  
한 것보다 우리가 좋게 평가를 받았어요.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수성구형 문화도시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성구는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공동체, 다양한 사업별 형태를 갖추고 그것이 조합의 형태이든지  
동아리의 형태이든지 개별기업의 형태이든지 또 개별 협회의 형태이  
든지 간에 다양한 문화의 형태가 나오되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고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구정질문·답변

이것이 다른 시도에서 문화도시 형태를, 참여형 문화도시 형태를 가봤는데 정부 돈이 끊어지면 그 자리에서 끊어질 확률이 거의 99%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이 어떤 자기 몰입과 자기 투영이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집중해서 특히 들안 마을에 공예촌, 공예를 통해서 디자인과 시각예술, 교육 이런 것들이 응축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이미 출발을 했고 그 형태를 지속화시키는 문제하고 거기다가 캐릭터 뚜비 망월지 생태 아이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굿즈, 주민들이 공급할 수 있는 주민들의 직업적인 선택지도 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화 시키는데 그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단에서도 참여하지만 우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과 협약을 해서 디자인진흥원이 공예 산업에 집중적으로 뛰어들어서 우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국비

확보 능력과 잠재력, 디자인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이것이 앞으로 단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포메이션을 만들어내는 데 저희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하는데 공모사업을 약간 변형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공모에 탈락하더라도 우리가 지속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준비해서 쌓아온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등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들이 많은 네트워크와 연계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 가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하겠습니다.

제256회 제3차 본회의 6. 26. 월요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수성구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박 영 숙 의원

국민의힘, 범어1,4동, 황금1,2동



질의 박영숙 의원

저는 오늘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수성구형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 돌봄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수성구는 공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보육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이제는 공공보육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인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은 만 0세에서는 3명, 만 1세에서는 5명, 만 2세에서는 7명 그리고 만 3세에서는 1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출산율 1.18명이었던 20년 전의 기준으로 출생률 0.78명인 2022년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서장애 아동 등 특별한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수성구의 보육관계자 및 학부모님들은 영유아의 안전 문제, 아동학대 발생위험, 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 영유아 발달에 따른 맞춤형 돌봄과 교육 제공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본 의원에게 토로하고 계십니다. 아동비율을 한 명씩이라도 줄여준다면

교사의 업무 부담이 해소되고, 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모두가 원하는 안심보육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은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서는 수성구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적극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맞춤형 돌봄과 어린이집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육아지원 전문기관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보육교사 보수교육 및 보육컨설팅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수성구에 폐원한 어린이집이 60여 개소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폐원 문제는 생계를 위해 반드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부부에게 1차적으로 부담을 주고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보육교사에게도 큰 문제가 됩니다. 구청장님께서서는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폐원으로 아동보육권이 저하되는 권역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어 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수성구형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서는 우리 구의 어린이집 폐원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마시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교사의 업무 부담을 낮춰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세심한 돌봄과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결국 부모의 만족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1석 3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수성구형 어린이집' 모델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위기의 현실에서 아이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수성구"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박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출산을 저하 또 어린이집의 폐원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하신 보육교사 0세~3세반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하는 문제인데 한 선생님이 0세 아동 3명을 봐야 되고 이런 비율들이 실제 상당히 부담이 큼니다. 서울시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춰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린이집에 부담을 줄이고 보육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럼으로써 결국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그런 목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볼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의 비용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우리가 예측해 보니까 17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부담이 돼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 해서 기본적으로 폐원이 증가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되살려서 돌려놓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구청장 시작할 때 194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지금 141개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정원 대비 현원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수도 현재 다 줄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동안에 우리는 어디로 방향을 맞추어 왔는가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부지원도 있고 우리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어서 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공립 비율이 다른 데보다 높아요. 제가 기억은 못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국공립 비율이 우리 수성구가 37%정도 됩니다. 전국이 20.3%이고 대구시가 24.3%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국공립 지정을 받고 10년 동안 가야 되는데 벌써 어린이 수가 줄어서 국공립어린이집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틀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즈음에 중앙정부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문제가 나와요. 그 정책대안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방과 후에 어린이들을 늘봄학교라고 해서 돌봄을 교육 쪽에서 적극적으로 맡아주기로 하는 정책이 발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환경트랙도 지금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상태에서 우리도 뭔가를 정해야 되는 상태이고, 현재 이런 즈음에 있다는

구정질문·답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어린이집을 교육자원, 다른 필요한 교육자원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전환시켜서 그 전환된 어린이집의 현원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돌려줌으로 해서 다른 어린이집의 형편이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럼 전환하는데 어떻게 전환하느냐! 그 전에 '다 같이 보육'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23개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참여해서 공동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공동이 기획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다 같이 함께 함으로써 비용을 전반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또 선생님들을 효율적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정책에 우리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성구형 공동보육정책을 내서 내년부터 어린이집 간에 연합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예를 들면 회계인원의 비용을 전체 인력이 공통으로 공통으로 해결함으로써 비용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외부를 교육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공동으로 기획한다든지 어린이집 한 집이 아이들 버스 태워서 외국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몇 집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비용도 좋고, 버스 1대 빌리기도 쉽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어린이집의 재정환경을 보완해 주고 하는 그런 수성구형 보육정책을 추진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어린이집을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1개가 전환되었어요.

그래서 운영결과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이것을 전환 하면서 아주 특수한 형태의 어린이를 위한 교육자원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창의센터 이런 형태로 변형시키면서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 질문에서는 첫 번째 말씀인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여주는 문제는 비용 등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구시와 상의도 해보고.

왜냐하면 우리 혼자 비용을 감당하기가 현재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여러 기능 문제인데 보육교사들 교육하고 이런 문제들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컨설팅 문제와 보육교사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은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핵심은 부모교육입니다. 현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을 어떻게 정립시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사회, 청소년들의 성장과정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부모들과 대화의 공간 또 어린이 집들의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성을 컨설팅 하는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재 고산지역에 쏠려 있어서 이쪽 '을' 지역도 하나 어디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인 폐원어린이집들을 어떻게 하고, 일자리 잃게 되는 보육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때도 한 번, 두 번 정도의 수미창조 포럼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전환시키고 교육자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폐원 어린이집들이 다른 경제적인 요소로 활용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교육자원으로 그대로 남아있되 보육교사나 원장님의 경험이나 커리어가 교육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로써 다함께 돌봄센터,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특수한 교육 형태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세 번째는 그것이 어떤 새로운 심리상담이나 아니면 치유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공간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 그 업무를 우리가 위탁을 시키고 거기에 그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면서 동시에 지금 어린이집들을 네트워크 적으로 연결해서 전반적인 비용을 줄이고 다함께 가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두 가지 더블 정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256회 제3차 본회의 6. 26. 월요일

# 장애인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언

정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 황금1,2동



## 질의 정대현 의원

본 의원은 장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장애인입니다. 한자로는 아닐 비(非)가 아닌 갖출 비(備)를 사용하며 우리 모두는 예비장애인입니다. 장애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으며 총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의 순입니다. **(자료 화면)** 202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장애인 수는 총 586만 명이며 이 중 88%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후천적장애란, 질환이나 각종 사고 및 외상, 원인불명 등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장애인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 2023년 2월 기준 수성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만 8,033명입니다. 시각장애인은 1,667명으로 15개 장애유형 중 네 번째로 인원이 많습니다.

**(자료 화면)** 길을 걷다 보면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는 “점자블록”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성구는 광로 10곳, 대로 28곳, 중로 129곳 등 총 168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자블록은 위치를 표시하는 점형블록과 방향을 유도하는 선형블록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보행편의를 위해 점형 및 선형블록은 가로 30cm, 세로 30cm이며 높이는 0.5cm~0.6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지고, 선형블록은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으로 하며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노란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성구 시각장애인들의 눈인 점자블록이 매뉴얼에 따라 설치되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성구 내 점자블록 점검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통해 2020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보도관리대장을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점자블록을 추가로 설치한 곳이 있는지, 또 점자블록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 답변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정대현 의원께서 장애인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문제의 편익과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 내용이 저한테 벌써 다 와있습니다. 와서 우리 직원들과 상의도 했고,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이 굉장히 시의적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해 보기에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에 있어서의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을 하는 부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교통의 관리를 하는 부서 이것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충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점하고 또 보도블록을 하는 시행회사하고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회사하고 서로 다르다든가 또 같을지라도 기준을 정확하게 몰라서 하고 난 후에 점검이라든가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측면을 총체적으로 문제점과 모순점을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총체적으로 현황조사를 우리가 맡겨서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

두 번째는 현황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라든지 시공을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합동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세 번째는 장애인단체가 같이 참여한 준공검사들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의견교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이후 사월동, 성동, 파동 세 군데 추가 설치했고, 각 상·하반기 정기 하자점검을 시행하고 파손상태를 수시로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필요하면 제출을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답변

**추가질의1 정대현 의원**

다음은 화면의 사진을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 일대를 걸으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 다음 사진도 한 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이 두 사진을 보고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제가 우리 구청의 직원들하고 상세히 사진을 키워서 봤습니다. 그런데 점자의 지시방향이 좀 안 맞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된다든지 또 교통시설을 설치하면서 점자블록 위에 설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교통에 방해할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부서가 다르고 그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초점을 갖고 인식의 정도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교육의 방법이나 직원가 여기에 대한 초점이 필요하다. 장애인 시설을 중시하는 가치형성하고 초점이 필요하다,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추가질의2 정대현 의원**

국도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 따라 점자블록은 반드시 연결되어 설치되어야 하며 바닥면에서 30cm 이하 초과하는 크기의 맨홀 등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앞에 점용블록으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진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색상은 황색을 기준으로 하고 바닥재질과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 그리고 블라드가 설치된 경우는 30cm 전면에 충돌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점용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화면)** 전 사진을 보시면 점자블록 근처에 블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규정 미준수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장애물에 부딪혀서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블라드와 점자블록의 간격이 30cm 이상인지 블라드 전면 점용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 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진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점자블록 중간에 30cm 이상 크기의 하수도 및 맨홀 등이 있다면 반드시 앞에 점용블록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에게 알려야 하고, 하단 사진 보시면 황색이 아닌 어두운 색으로 바닥 색상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 시각장애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가야 할 행정복지센터 입구마저도 블록들이 셋 방향으로 끊겨 있어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수성구 내 점자블록 전체를 점검하고 아까 말씀하신 개선할 곳을 파악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요청드리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답변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예, 우선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 행정기관 부근부터 시작을 해서 교통이 붐비는 거리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질의3 정대현 의원**

**(자료 화면)** 다음,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정상작동이 된다면 교통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차도 밖으로 나오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위의 사진은 장원맨션 횡단보도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인데요, 오랜 시간 작동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미작동으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거나 시각장애인 음성신호기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발생 등 수성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구청 차원에서의 책임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교통과를 통하여 두 번이나 2개의 현황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구별 정리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현황 파악하고 우리도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 청장님께서 그 자료를 받으셨다니 과를 통해서 저에게 서면제출도 부탁드립니다, 수성구 내 설치된 시설물인 만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음성안내 보조장치 이 문제는 사실 고장이 너무 잦아요. 지금 대구시 전체의 인식인데 설치 대비 뜻은 좋은데 설치 대비 효율성이 낮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고장 나면 다른 구에서도 철거하는 형편이에요. 가다가 보면 자외선이나 이런 것으로 일반인들도 여기는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올라가 주세요. 설명 들으셨죠? 횡단보도 건너기 직전에. 그것을 말합니다. 말하는데 그것이 외부에 설치되다 보니까 고장이 진짜 빨리 나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관리를 못 할 것 같아요. 또 효율성보다는 차라리 아까 신호기 늘려서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제대로 설치하고 이런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질의3 정대현 의원**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한 국회의원의 발언내용을 인용하면서 마무리 발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잉어의 한 종류인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유명합니다. 작은 어항 속에서 10cm, 수족관에서 30cm,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는 물고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장애인들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성구가 더욱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들의 강물이 되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5회 제1차 본회의  
5. 9. 화요일

### 국가를 위해 목숨바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 촉구

정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 황금1,2동



범어1동, 4동, 황금1동, 2동 출신 정대현 의원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북한 침공에 맞선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현재의 우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으로 남침함으로써 6.25 전쟁이 일어났고 1953년 7월 휴전 협정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면 우리는 자유와 인권이 없는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전쟁에 참전한 이들을 지금 국가는 어떻게 보살피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월 39만 원의 명예수당,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 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참전유공자들이 전쟁으로 인한 부상과 후유증, 지병으로 꾸준히 치료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022년 6월 TBC 뉴스에서는 지자체별 6.25 참전유공자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구시에서 지급되는 6.25 참전유공자 수당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로 적고, 8대 특·광역시 중 꼴찌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8개 구·군 중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이지만 수당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참전 명예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에서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6만 원에서 3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구·군이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대구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구·군의 추가지원이 없어 상대적으로 수당이 낮다며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2023년 5월 대구시는 8개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며, 대구 시·군·구 협의회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수성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수성구 자체 예산으로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수성구 내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수성구 내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총 1,648명이며 이 중 6.25 참전유공자 399명, 월남 참전유공자 1,239명, 6.25와 월남을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10명입니다. 6.25 참전유공자 409명에게 매월 참전 명예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면 매달 4,09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국 평균 수당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바친 희생은 같은데 거주지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이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도 꾸준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원되는 전체 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잡고 대구시와도 협력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6.25 참전유공자를 시작으로 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6.25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월남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1,249명의 월남 참전유공자 중 일부라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쳐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수록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참전유공자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

제255회 제1차 본회의  
5. 9. 화요일수성구  
공공화장실 개선과  
공공시설물 구축  
방향에 대한 제언

박충배 의원

국민의힘,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



파동, 지산1동·2동, 범물1동·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박충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현장확인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성구 공공화장실 개선과 공공시설물 구축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수성못 일대 공공화장실과 지산근린공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수성못 남편 등산로 입구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니 입구는 남녀 구분만 표시된 채 출입문을 겨우 가린 벽이 하나 서 있었고 방충망 등이 파손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내부를 직접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일반 성인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좁은 공간이라 문을 닫으면 무릎이 바로 닿아서 고개를 숙이거나 움직이는 것이 힘 들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산근린공원 화장실 옆에 붙어 있는 청소미화원 분들의 휴게 환경 공간도 문제가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고는 각종 청소 도구뿐만 아니라 청소 관련 비품들을 보관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였으며, 휴게 공간은 한 사람이 누우면 딱 찰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모든 공공화장실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성못에 위치한 다른 2곳의 공공화장실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남녀 화장실과 별도의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여 장애인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되고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매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쾌적하였으며, 특히 내부공간도 넓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선도 배려된 점이 돋보였습니다. 청소 도구함 역시 물품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화장실 관리도 매우 청결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흔히 문화수준의 척도로 공공화장실을 보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화장실을 비롯한 공공 시설물은 공간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다시 말해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말,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무국외출장으로 선진지 6박 8일간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스토리가 있는 공공

시설물이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삶에 편리함을 제공하면서도 문화유산들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 시설물이 많았습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역사적인 공간은 외형은 그대로 보존하되 내부의 공간만 바꿔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로마의 공공화장실, 베네치아의 공공화장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쾌적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조차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파리의 공공화장실 등 모든 공공시설물 하나하나 그 도시의 역사와 특색을 살린 것이 돋보였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 모양을 형상화한 4개의 큰 도서관 건물들, 책들을 뜨거운 햇볕에서 보호하기 위해 해가 들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블라인드 등을 보며 공공시설물을 단순히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징을 입히고 특징을 입은 공공시설물은 색을 더해서 새로운 도시의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끝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보행자 중심, 사람 중심의 도로 구조와 계획이었습니다.

신도시가 아닌 오래된 건물들과 좁디좁은 골목길 사이사이로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가 서로의 영킴 없이 통행이 편하도록 설계 보완되어 있었으며, 차도 역시 사람이 우선 지나갈 수 있도록 신호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전거도로는 차도와 완전한 구분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인도와 자전거도로, 자동차의 경계가 무엇보다 명확했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자동차도로를 연상하듯 자전거로 안전하고 편안한 왕래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자전거 이용자가 많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도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만 끊어지고 불명확한 자전거도로와 불법주정차로 인해 자전거도로는 위험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와 공공건축물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도시 브랜드, 나아가서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위더스 수성(with us Suseong)'이 지금보다 더욱 가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제1차 본회의  
5. 9. 화요일

## 수성구 파동지역의 교통대책 마련방안에 대하여

김재현 의원

국민의힘, 파동, 자산1,2동, 범물1,2동



도시보건위원회 김재현 의원입니다.

최근 재건축과 재개발로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수성구 파동 지역의 교통대책 마련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성구 파동 일대는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 등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총면적 9만5,000평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3,558세대, 약 1만 명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558세대 약 1만 명이란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범물동 우방미진아파트에서 용지사거리까지 약 400m 공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통과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30초에서 40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범물동 코오롱하늘채 입주 아파트에 700세대가 입주하면서 300m의 구간엔 보행자 신호등과 교차로 신호등 2개가 더 신설되면서 300m 구간을 통과하는 데 평균 약 5분에서 6분, 출퇴근 시간에 신호가 밀리면 약 7, 8분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700세대가 입주한 상황이고, 지금 파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558세대 약 1만 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됩니다. 파동은 현재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 되면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동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개발계획에 걸맞은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불편한 교통대란에 시달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민들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파동 지역의 교통대책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변화될 교통량에 적합한 파동로 신호 연동 체계 및 신호현시 조정과 인접도로의 점진적인 확장이 필요합니다.

파동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신천대로와 신천동로 그리고 주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수성로와 파동로가 남북 축으로 가창과 연결하는 가로망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특히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수성로와 파동로는 좁은 도로폭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통행량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파동IC를 지나서 파동교네거리 구간은 왕복 2차로로 파동IC를 진출하여 파동, 가창 방면으로 진출하는 서측 유입부는 1개 차로에서 좌회전, 직진, 우회전 차량이 공유하는 차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 신호를 받는 도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교차로 신호주기로

한 번 또는 두 번이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대에 비해서 기존에 변화된 교통량에 적합한 신호 체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창 방면으로 가기 위한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에서 남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및 파동로 북측 직진 교통량에 의해 대기하기 때문에 직진 및 좌회전 차량의 유출을 막아서 교차로 지체가 발생하고 있어서 대구시에 지속적인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또한 해결이 쉽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동로 일대의 파동로 신호 연동 체계 및 신호현시를 조정하여 원활하게 차량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변화된 교통량에 맞는 교차로 운영이 필요하며 주변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도로 확장을 해야 합니다. 현재 파동로 인접 아파트에 3m가량의 차선 하나를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 중이지만 입주가 시작된 이후 교통혼잡을 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둘째, 파동 지역을 지나는 대중교통의 확충도 필요합니다.

현재 파동 지역을 경유하거나 관통하는 시내 버스는 총 7개 노선에 111대입니다. 하지만 앞산 터널로를 통과해 상인 지역이나 가창 지역으로 가는 버스는 이용객이 적거나 환승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증차 또는 추가 노선이 신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도로교통대책으로 수성남부권역 교통정체 해소 및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파동 구간 연장과 6호선인 가창 수성남부선 신설도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수성못역을 지나서 용지까지 이르는 3호선의 경우 파동행정복지센터까지의 연계만으로도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성남부선은 도시철도 소외 지역인 중동과 상동, 파동 일대의 주민들이 겪게 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노선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앞으로 2025년까지 도시철도망 구축용역을 시행해서 2026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늘어나게 될 자가용으로 인해 기존의 도로용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버스노선의 증설 또는 확충만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교통난을 해결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파동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수성구민 전체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 5분 자유발언

수성구 파동지역의 교통대책  
마련방안에 대하여

김재현 의원

다양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철도 3호선 연장과 수성남부선 신설이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성구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의견 촉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성구의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파동 지역 교통대책 마련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5회 제2차 본회의  
5. 16. 화요일

##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최현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최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병원동행서비스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집행부에 본 사업 홍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심진료동행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보호자의 부재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성구민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이 신청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 모든 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021년 7월,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최초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이후 2022년 정식 사업화되어 현재는 수성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독거 어르신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진료절차가 어렵고 장시간의 진료시간을 필요로 하는 대학병원 이용 환자, 안과·치과·물리치료 등 정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자녀와 일정이 맞지 않아 부모님의 병원동행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의 신청이 가장 많았고 이분들의 재 이용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병원동행서비스사업’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수동적이고 미흡한 홍보 탓에 정작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 도입 시기도 빠르고 정식사업으로 추진된 지 2년째 접어들었지만 참고자료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기준 총 이용건수는 87건, 실 이용자는 21명으로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와 이용요금을 비교해 보면 일반인의 경우 수성구는 시간당 1만원, 서울·경기도는 5,000원, 수성구의 이용요금이 시간당 5,000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자의 경우 수성구는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서울·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지원이 되었고, 인천시의 경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무료로 병원동행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의 이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의 이용요금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현재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내 “우리동네돌봄사업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 및 돌봄 매니저들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성구 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경력이 단절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을 활용하여 동행 매니저를 확충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지원하여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병원동행서비스’가 수성구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호하는 공적 돌봄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본 사업을 소개하는 창구를 확대하여 꼭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제2차 본회의  
5. 16. 화요일

## 수성구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대책에 대하여

박영숙 의원  
국민의힘, 범어1,4동, 황금1,2동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약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수성구 청년들의 마약 예방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1~20대 청소년 마약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에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불과 2017년 119명과 비교해 304% 급증한 것입니다. 그중 고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5~18세 마약류 사범은 291명, 15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1명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더 이상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생활 속에서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위험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퍼진 마약 포비아, 대구에서 여중생에게 마약 탄 술을 먹이고 추행한 사건을 보면서 청소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교육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는 이유로 높아진 마약 접근성과 유희에 취약한 점 등을 꼽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온라인에 친숙한 청소년들은 다크 웹과 텔레그램 등 각종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마약에 노출되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기심 많은 10대들의 충동적인 특성과 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무지함,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다이어트 약과 펜타닐 같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을 통해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기 뇌는 성인보다 훨씬 중독에 민감하고 치명적입니다. 우연하게 접한 마약류라 하더라도 심각한 중독성을 가진 탓에 그야말로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에서 유해한 정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기 예방교육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수성구 보건소와 청년여성가족과에 청소년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과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현재 흡연·음주 등 청소년 유해 약물에 대한 교육은 있지만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은 없었습니다.

모 일간지에 발표한 대구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 20대 마약 사범 검거 건수는 2020년 71건에서 2022년 11월까지 15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 검거 건수도 2020년 3건에서 2022년 11월 12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수성구는 학원가가 발달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 청소년 마약 예방 대책을 위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강화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마약의 종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고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에 노출된 경우 학교, 가정, 친구들과 소통을 통해 그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과 부모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대한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는 이미 "길거리 음식을 먹지 말자!"와 같은 포스터가 엘리베이터, 식당, 강의실 등 학원 곳곳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된 그 수많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마약류 예방을 위하여 수성구청과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종종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등의 이유로 마약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금지하는 것 이외에도 유관기관들과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취미를 즐기고 주변과 대화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현재의 상황을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깨어있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제255회 제2차 본회의  
5. 16. 화요일

## 지진에 대비한 피해예방 및 대비책을 강구하자!!

차 현 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성1, 2,3, 4가, 중, 상, 두산동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 의원 차현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한반도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총괄적인 점검 차원에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이웃한 일본에서는 자주 크고 작은 지진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재산피해도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발생횟수와 피해가 적다 보니 이런 재해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지형적인 구조 탓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일본시민들은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진에 대비해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습득하고 또 가족끼리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집에는 늘 비상물품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의원은 학창시절 일본에 여학연수를 갔을 때부터 업무적으로 일본에 출장 갈 때마다 직접 겪었던 크고 작은 지진경험이 많기에 만약 한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처했을까라는 생각을 평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2011년 3월 11일에는 일본 현지에서 직접 겪었던 그 지진의 충격과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본의 지진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평소 느끼고 생각한 것을 수성구에 접목시키고자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일본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진과 관련한 기관들을 방문하여 지진피해 예방과 대응책을 살펴 보며 왔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자리에 종이를 하나씩 두었습니다. 이것은 1995년 1월 17일 일본 한신대지진의 교훈을 바탕으로 고베시에서 만든 방재 비상용품 체크리스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진이 일어나기 전부터 비상품 준비 체크리스트와 지진발생 후 대피 방법 및 장소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다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준비와 사후대처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에서는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과 그 다음 1년 후인 2017년 11월 15일에 경북 포항시 북구 쪽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있었

습니다. 그때 포항지진은 대구에서도 건물이 심하게 흔들려 그 강도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는 지난달 4월 30일 충북 옥천에서 규모 3.1의 강도의 지진과 바로 어제 강원도 동해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을 포함해서 올해만 들어서 12차례 이상 계속해서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지질학자 등 전문가 발표에 의하면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준비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진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안내 및 대피 매뉴얼은 갖고 있는지? 지진과 관련해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인지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다음 두 가지를 수성구청에 부탁드립니다.

첫째, 일본 고베시의 사례처럼 우리 수성구도 주민들을 위해 지진대비 비상용품 체크리스트와 대피안내장소 및 피해 예방 지침서를 만들어 모든 주민들에게 배부 및 구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주실 것과 둘째, 수성구청에서 지진과 관련해 총괄적으로 대비 및 대책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고 대비한 곳에서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님과 구청 내 모든 부서에서도 지진과 관련해 해당 부서에 관련한 내용이 없는지 진지하게 잘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성구민과 대구시민들께서 지진과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미리 세심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잃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다가올지 모르는 지진에 수성구는 준비를 잘해서 현세대는 물론 다음세대에 지역 내 주민들께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6회 제1차 본회의  
6. 12. 월요일

###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속지원의 필요성

배 광 호 의원  
국민의힘, 고산1,2,3동



고산1·2·3동 지역구 출신 배광호 의원입니다.

다음의 사진을 함께 봐주십시오.

화마로 뒤덮인 이곳은 지난 2016년 11월 새벽, 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이 화재로 점포 670여 개가 불에 타는 등 500억 원대 규모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날의 참화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대형 재난상황이 발생되었음에도 대구시에서 화재공제 보험료를 전혀 지원해 주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주변 건물도 전소 위험에 놓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서문시장의 화재처럼 제공처를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인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은 그 특성상 영세 상인들이 많고, 이들은 화재 불안 속에서도 무방비한 상태로 생계를 위해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2017년부터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는 하였 습니다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한 언론보도의 말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불이 안 나면 공제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보험”, 이것이 상인들이 공제보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경제불황 속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만 하는 영세 상인들이 직면한 현실에서는 공제납입금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인들이 최소한의 생업안전망 속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수성구에서 고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재와 같은 재난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지는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평균 52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소상공인들의 피해액 규모는 1,307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화재공제 가입현황 및 보조율을 보시면 화재 발생에 대한 보험 가입률은 2022년 말 기준 전국

25.71%로 전체 상인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 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0.8%, 강원도가 37.95% 순으로 높았으며, 대구는 22.84%로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 중 수성구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수성구 내에는 신매시장, 자산목련시장, 수성시장 등의 8개 전통시장에 360여 개 점포가 활발히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민간과 공단의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는 99개밖에 되지 않으며 여전히 261개 점포, 약 73%의 전통시장 점포가 화재 공제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이 1위인 경기도는 공제로 보조율이 90%나 되어 상인들의 가입 기간도 다년인 경우가 많았으며, 가입률 또한 전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올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화재공제 보험 가입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문시장의 악몽과 같은 큰 화재가 우리 수성구 전통시장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화재공제에 미가입된 영세 상인들이 추후에 겪을 생계의 고통을 생각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청 관계자 여러분! 상인들에게 있어 전통 시장이란 단순한 일터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생업이자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그들의 생업안전망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 수성구에서도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화재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노후전선 교체와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화재알림시설 및 소화기 제공 등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수성구의 전통시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제256회 제1차 본회의  
6. 12. 월요일

## 상동 두산교·공원·건축물 명칭 변경에 대하여

### 조규화 의원

국민의 힘, 수성1, 2, 3,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동에 현존하고 있는 명칭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성구의 공원, 공공건축물 명칭의 변경과 앞으로 지정될 공원, 공공건축물의 명칭 선정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고유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이름을 붙이면 다음에 바꾸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할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명칭이라는 것은 역사와 개성, 명예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신천변 교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중동에서 시작하는 중동교, 상동에는 상동교, 두산1·2교가 있으며 파동엔 용두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동 방문 때마다 주민들이 건의하는 민원 중 하나입니다.

상동에 현존하고 있는데 왜 두산1·2교라고 부르느냐? 두산1·2교 명칭을 변경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뚜렷한 답변이 없는 답답한 현재 실정입니다.

상동에 현존하고 있는 교량을 상동교라고 부르고 있으니 두산1·2교를 상동1·2교라고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직까지 두산1·2교 명칭변경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름 조사해본 결과 두산1·2교 관리는, 신천 교량의 관리는 우리 수성구청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처음 두산1·2교라고 이름 지었을 때 어떤 사유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 두산1·2교의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또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수성구에는 129개소의 도시공원이 있고, 96개의 공공건축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성구의 공원과 공공건축물의 명칭을 살펴본 결과 단순히 공원, 소공원, 어린이

공원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로당의 명칭도 행정관리 편의상 숫자순으로 제1경로당, 제2경로당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명칭을 결정해야 하나 법령에 따로 지정하는 기준이 없어 관례상 지역명이나 도로명 또는 단순한 순번으로 명칭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명과 도로명을 명칭으로 지정하다 보니 주민과 관광객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동에는 상동공원경로당이 있습니다. 상동공원경로당이라고 하면 상동공원 경로당 옆에 상동공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상동공원경로당 옆의 어린이공원은 희망어린이공원이라 명명되어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과 관광객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명칭 때문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조성될 도시공원의 경우에 '도시공원 명칭 제정 계획'을 수립하여 절차에 맞게 도시공원 명칭 공모 실시를 하고 주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서 도시공원의 명칭을 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원은 그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의 오해 소지가 있는 공공건축물 명칭도 주민 공모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변경해 나아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칭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연상 작용과 함께 사람들의 인상에 남는 이미지 메이킹 작용 때문에 수성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요인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가에는 명전기성(名詮其性)이라 하여 '이름에 그 본성을 담는다.'라고 하였고, 성서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명칭변경을 통해 수성구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가 잘 드러나는 구민 친화적 수성구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제256회 제2차 본회의  
6. 16. 금요일

## 수성구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박충배 의원

국민의힘, 파동, 자산1,2동, 범물1,2동



파동, 자산1동·2동, 범물1동·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박충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자 수성구도 심각하게 마주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수성구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현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나 2020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져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 감소하게 되는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인 반면 수성구의 합계출산율은 대구시 평균보다도 낮은 0.69명으로 예상되며 최근 6년간 계속해서 하락세 중에 있습니다.

최근 6년간 합계출산율 추이실태, 매년 출산율 감소의 주된 이유로 출산과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되었으며,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지출 역시도 핵가족화와 맞벌이가구가 증가하면서 자녀를 계획하는 부부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산모의 온전한 휴식과 신생아의 위생관리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태어난 아이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에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본인 집, 다음으로 산후조리원이었으나 실제로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는 산후조리원을 꼽았으며, 81%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또 산모들이 희망하는 산후조리 기간은 71.1일이었지만 실제로는 30.2일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기간은 12.3일에 그쳐 산모가 산후조리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에 드는 평균비용은 249만 원으로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산후조리원에서의 비용은 220만 원에서 243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수성구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실 기준 평균 311만 원으로 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비용문제를 가장 크게 꼽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비용 부담은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도에 제주도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작으로 현재 22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거나 예정에 있으며, 2022년 6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한 예로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분만 두 달 전 선착순 방문예약으로 이뤄지는 조리원 예약을 위해서 예비 부모들이 이른 시간부터 대기하는 등 예약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민간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과 철저한 감염 관리를 진행하여 응급상황 시 홍성의료원 응급 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라는 인식으로 임신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비용 또한 취약계층은 최대 50% 감면, 지역 주민은 30% 감면이 되며 의료원에서 분만 시에는 10% 추가 감면까지 이뤄져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3분의 1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가 있습니다. 산모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90점 이상이 나왔으며, 인근 지역에서도 이용하기 위해 원정을 올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수성구에는 민간 산후조리원 7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을 진행하여 정부보조금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기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수성구의 유일성과 함께 인구 유입의 필요성을 늘 강조하셨기에 본 의원 역시도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또 지원하는 사업은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수성구가 앞으로 소멸될 위기에 처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 후 산후조리까지 수성구가 책임질 때 진정한 행복 수성이 가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제256회 제2차 본회의  
6. 16. 금요일

## 걷고 싶은 도시, 수성구 - 문화거리 조성

정 경 은 의원

더불어민주당, 파동, 자산1,2동, 범물1,2동



파동, 자산1·2동, 범물1·2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수성구는 우수한 정주여건으로 주민 삶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높으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의 인구는 2013년 46만1,00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인구는 11년 사이 32.2%가 감소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가 발표한 지역 경쟁력 현황에 따르면 수성구의 지역경쟁력은 대구에서 달서구, 북구에 이어 3위이며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106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사회환경 변화와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지만 수성구가 처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의 연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를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사람들이 머물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매력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시가 지닌 다양한 매력 가운데 하나로 '걷고 싶은 거리'를 꼽고 싶습니다.

파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며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입니다. 파리에서는 누구나 산책자가 되듯이 파리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산책하기 좋은 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파리를 걷다 보면 수많은 삶의 이야기와 만나게 되고 성찰이 일어난다"며 "파리는 무엇보다 걷는 자를 위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최근 파리는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이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교수가 제안한 15분 도시를 구현하고자 파리의 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파리를 도보와 자전거로 이동 가능한 15분 생활권으로 만들고 누구나 이동이 자유롭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평등과 연대의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실험입니다. 지난 3월 말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파리를 방문했을 때 '15분 도시'를 지향하는 파리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으며 이는 파리를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요소로 느껴졌습니다. 파리 외에도 포틀랜드, 멜버른, 오타와 등 세계 여러 도시가 주목하고 있는 '15분 도시'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세대 도시학자인 고(故) 강병기 교수가 "걷고 싶은 도시라야 살고 싶은 도시다"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하며 이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말한 걷고 싶은 도시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편리하고 경제적인 도시, 편안하고 배려하는 도시'입니다. 구청장님도 이미

중장기적으로 '사람 중심 스마트 교통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생각을 담은 길' 등 산책하기 좋은 길 조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기에 더해 도심 곳곳에 숨겨진 매력과 이야기를 지닌 길을 발굴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걷고 싶은 길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길을 따라 걷게 되면 지역만의 특색을 지닌 문화가 싹트고 골목 경제도 활성화하게 됩니다. 서울의 경리단길에서 시작해 인천 부평 평리단길, 전주 객리단길, 광주 동리단길, 경주 황리단길, 부산 해리단길까지 전국 곳곳에 저마다의 특색을 지닌 골목길들이 생겨나고 명소가 자리 잡으면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들은 유행처럼 생겨났다가 하나둘 쇠락해 가기도 하지만 경리단길을 모방한 골목길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은 걷고 싶은 길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골목길 경제학자로 불리는 모종린 교수도 지역발전을 위한 3가지 요소 중 하나로 골목길을 꼽았듯이 도심 곳곳에 지역 특성이 살아있는 길이 생겨난다면 수성구가 좀 더 활기차고 개성 있는 도시로 변모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수성못오거리에서 호텔수성을 지나 범물동으로 이어지는 용학로 일부 구간을 문화거리로 조성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가로를 정비하여 걷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거리를 디자인하여 특색 있는 문화공간이 들어서고 코컬크리에이터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리 곳곳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채워진다면 수성못을 찾는 방문객들도 잠시 스치듯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경험하고 즐기게 될 것이며 수성구가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이 길에는 현재 작은 문화공간인 자산아트홀이 있으며 에덴 어린이 공원, 자산 근린공원, 수성생활체육공원 등 충분한 녹지 공간과 목련시장이 있으며 최근 대구시의 골목상권 회복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범골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좀 더 반경을 넓히면 수성아트피아와 용학도서관, 진밭골까지 넓게 아우르게 됩니다. 이렇듯 원래 길이 가지고 있는 이벤트적인 요소와 지역성과 문화라는 요소가 어우러진다면 수성구를 대표하는 걷고 싶은 거리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거리를 통해서 수성못이란 관광지와 지역이 연결되고 골목경제가 되살아나는 선순환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거리를 걸으며 지역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방문객들이 서로 만나 어우러지며 다채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수성구를 꿈꾸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제256회 제2차 본회의  
6. 16. 금요일

## 존폐 위기에 있는 동네 목욕탕, 사회복지서비스망 형성을 위한 지원 방안책 촉구

김 경 민 의원

국민의힘, 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수성1가, 2,3가, 4가,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경민 의원입니다. 저는 목욕탕 시설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취약계층에게 청결히 씻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릴 적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찾았던 대중목욕탕에 대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향수가 담겨있던 동네목욕탕은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우리 동네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기다리며 버텨오던 목욕탕들도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미 줄줄이 인상되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구시 목욕탕업 인허가 정보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대구시 내 총 120여 곳 약 40%가 폐업 또는 운영 중지했으며 수성구도 총 55개 업소 중 10곳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많은 목욕탕이 동네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현실에 업주들 역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시설을 이용했던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우리 사회가 돌봐야 할 사회적 취약계층 즉 사회환경 속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이웃들 역시 목욕을 위한 시설이 없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목욕탕 영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겨울철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 혹은 샤워시설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현장 노동자에게는 필수 시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욕은 고통과 불편함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간의 행복할 권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이해하고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의 생활 속 밀접해야 할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의원은 수성구청에 두 가지의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사업의 신설입니다. 우리 수성구에 있는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의 목욕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수성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경북의 포항을 시작으로 전국의 여러 시·군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목욕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의 경우 상품권 형태의 바우처를 발행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역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목욕탕과 협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및 다양한 형태의 바우처를 만들어 복지와 함께 동네 목욕탕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일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목욕탕 운영시설에 대한 일부 운영 보조 및 건립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지산, 범물에 위치한 복지관에 있는 목욕탕 역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접근성과 낮은 가격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처럼 동네 곳곳에 목욕탕이 운영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성구가 생존을 위한 일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욕탕의 수도, 전기, 난방 등 일부 운영비용을 감면 및 보조하여 이제 막 코로나19의 여파가 끝난 목욕탕이 스스로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롭게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한 신고하는 사업주가 나타난다면 일부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형태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러한 지원은 우리 수성구가 요구하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세부 조건으로 두어 이를 이행할 경우 공익적 역할을 하는 곳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가 처해 있는 복지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회 취약계층에 목욕탕 접근을 높일 수 있는 세부조건을 정립, 이를 충족 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항상 변화합니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문화에 따라 우리 삶의 형태 역시 변화되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과거 개인의 위생을 위한 선택적 사향의 기능이 강했다면 지금은 따뜻한 온수와 깨끗한 물로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는 복지의 기능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건립비용과 운영비가 들어가는 목욕탕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그 기능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수성구청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모집 제9기 수성 거꾸로 인생학교 수강생 모집

- 모집 8. 1.(화)~8. 14.(월) 선착순 모집
- 기간 9. 1.(금)~11. 30.(목), 12차시, 과목당 4만 원
- 방법 수성구 평생교육플랫폼 러닝톡(ill.suseong.kr)
- 대상 수성구 거주 만 45~70세 중·장년층(1953~1978년)

학과명	일시	장소	모집인원
전통요리학과	매주 화요일 14:00~16:00	고산평생학습센터 제12강의실	15명
도시농부학과	매주 수요일 10:00~12:00	천을산 희망토농장	30명
미술관 산책학과	매주 화요일 10:00~12:00 현장학습시간 유동적	평생학습관 (범어도서관 5층)	20명
부동산세 완전정복학과	매주 목요일 10:00~12:00		25명
우리 집 수납정리학과	매주 화요일 14:00~16:00		20명
스마트폰으로 인생사진찍기학과	매주 금요일 14:00~16:00		20명

※ 1인당 2과목 이상 수강 가능, 기존 수강 과목 신청 가능

- 문의 평생학습관 (666-3210)

### 모집 일상 속 자원봉사 실천 '올랄올랄' 봉사자 모집

- 모집 8. 1.(화)~12. 31.(일) • 방법 온라인(1365자원봉사포털) 신청
- 대상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수성구 주민 누구나
- 내용 시각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도서 점역 활동, 사진찍는 플로깅 활동, 비대면 채식 레시피북 만들기 활동
- 문의 수성구자원봉사센터(794-0707)

### 모집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 8월 시범 프로그램

- 방법 수성문화재단 홈페이지 신청, 선착순
- 장소 수성로14길 49~31(상동), 수성로20길 46(상동)



프로그램명	기간	모집인원
한지 - 달항아리 벽걸이 한지등 만들기	8/3~8/24 매주 목요일(4회차) 10:00~12:00	10
종이 플라워 - 여기는 왕꽃 군락지 (자이언트 플라워 만들기)	8/4~8/25 매주 금요일(4회차) 10:00~12:00	10
웍스 타블릿 - 수성구 캐릭터 '뚜비' 모양의 향기 나는 굿즈 만들기	8/4~8/18 매주 금요일(3회차) 14:00~16:00	10
도자 - 수성구 캐릭터 '뚜비' 티라이트 & 연꽃잎 앞접시 만들기	8/18~8/25 매주 금요일(2회차) 14:00~16:00	10

※ 접수 후 장소 별도안내

- 문의 수성문화재단(668-1546)

### 모집 학예사 자격 취득 과정 참여자 모집

- 모집 7. 14.(금)~8. 11.(금), 수강료 무료
- 기간 8. 18.(금)~11. 3.(금) 매주 금요일 18:00~21:00(총 12차시)
- 방법 대구평생학습 플랫폼 온라인 신청(study.daegu.kr)
- 대상 박물관 미술관 및 문화기반시설에 종사하고 싶은 청년 및 장년, 학예사 자격 취득과정 시험준비생 15명
- 장소 박물관 수 교육관(동대구로 382 지하 1층)
- 문의 박물관 수(744-5500, 010-6501-2585)

### 모집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신청자 모집

- 기간 5~12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 방법 전화 상담후 예약 접수
- 대상 관내 교육비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초등학생 4~6학년, 지역아동 센터 이용 초등학생
- 내용 예방진료(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무료 지원(4만 원 상당)
- 협력기관 관내 치과 63곳 ※ 수성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문의 수성구보건소 구강보건실(666-4868, 3138, 3144)

### 모집 수성창의과학센터 교육 프로그램 안내



- 모집 1회당 12명
- 장소 유니버시아드로 140(대구 스타디움물 1층)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폰으로 만드는 나만의 캐릭터	7/6~8/24 10:00~11:30	성인
유아 과학실험 마스터	7/8~8/26 13:00~14:00	6, 7세 (가족 1명 동반)
수박캔들 만들기	7/2~8/27 13:00~14:00	6세 이상
페트병무드등 만들기	8/5~9/23 13:00~14:00	
고누와 함께하는 수학 놀이	8/5~9/23 15:00~16:00	
곤충전문가, 나비디오라마	8/5~8/26 11:00~12:00	
공룡테라리움	8/6~9/24 14:30~15:30	
주사기 에어글라이더	7/1~8/26 13:30~14:30	7세 이상
이오난사 행잉 화분	7/2~8/27 15:00~16:00	
메시지 선풍기	8/6~9/24 13:30~14:30	
'인공지능 코딩 로봇' 쓰코봇	8/5~9/23 13:30~14:30	초등 1~3학년
1, 2학년 과학실험마스터	7/9~8/27 13:00~14:00	초등 1~2학년
3학년 과학실험마스터	7/9~8/27 14:30~15:30	초등 3학년
4학년 과학실험 마스터	7/8~8/26 14:30~15:30	초등 4학년
상상과 팀워크로 해결하는 족석 과제반	7/4~8/29 19:00~20:00	초등 4~6학년
블록코딩 RC카	7/2~8/27 15:00~16:30	초등 3~6학년
가상현실 코시스페이스	8/5~9/23 15:00~16:30	
자율주행 자동차 쓰코봇	8/6~8/27 13:00~14:30	

※ 접수 후 장소 별도안내

- 문의 수성창의과학센터(795-6298)

### 모집 수성구 부모성장교육, 바라봄학교 교육 참여자 모집

- 모집 상시 모집 • 방법 전화 접수 또는 러닝톡 온라인 신청
- 대상 수성구 예비부모 및 부모
- 내용 8월 장애아동부모교육 '마음이 트는 부모' / 9월 아동기부모교육 '감정코칭', 아동기부모교육 '아들 러 행복한 부모되기', 아동기 부모교육 'APT', 중 장년기 부모교육 / 10월 자녀 미디어 과사용 완화 교육, 자녀 성교육, 조손가정 부모교육
- 문의 수성구가족센터(795-4300)

### 모집 수성영상미디어센터 8월 강좌 신청

- 모집 홈페이지(www.suseong-media.com)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선착순
- 대상 수성구민, 수성구 소재 사업장 종사자 또는 법인
- 장소 수성영상미디어센터(달구벌대로528길 15, 수성대학교 성요셉관 지하 1층)

강좌명	접수기간	강의기간	수강료
곰믹스 영상 편집	7/21~8/4	8/8, 14:00~17:00	무료
나도 인싸되는 솜품 만들기	7/28~8/12	8/8, 14:00~17:00	
엄마 아빠와 함께 배우는 유튜브 교실		8/22~8/24 15:00~18:00	20,000원
우리 가족 유튜브 만들기	8/4~8/20	8/29~8/31, 9/5, 9/6 15:00~18:00	25,000원

※ 강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상세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문의 수성영상미디어센터(759-7903)

### 모집 2023 행복수성 아카데미 제2강

- 신청 7. 24.(월)~8. 5.(금), 러닝톡(ill.suseong.kr) • 일시 8. 12.(토) 10시
- 내용 지나영(존스홉킨스대 소아정신과 교수) '본질음악로 건강한 가족을 향하여'
- 장소 수성대학교 켄마관 101호 • 문의 평생학습알림터(666-3210)

### 모집 주민자치센터 어린이 강좌(교구수학/영어/가베) 수강생 모집

- 모집 8. 1.(화) 10:00부터 인터넷(www.mueng.com) 접수
- 기간 9~11월(3개월), 주 1회(40분) • 대상 4~9세(나이별 반 구성)
- 수업료 월 13,000~15,000원(교재비 별도) • 문의 미래교육(752-3700)

**행정 제34회 자랑스러운 수성구민상 후보자**

- 신청 7. 3.(월)~8. 21.(월), 50일간
- 추천권자 20인 이상 일반 주민, 관내 각급 기관단체 대표 등
- 선정인원 3명(지역발전, 사회봉사, 교육문화 부문 각 1명)
- 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행정지원과(666-2226),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2023년 주민세 납부 안내**

**주민세 개인분**

- 납부기간 8. 16.(수)~8. 31.(목)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7. 1.(토) 기준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 세액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 납부방법 전국 금융기관 및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주민세 사업소분(신고납부)**

- 납부기간 8. 1.(화)~8. 31.(목)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7. 1.(토) 기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 세액 기본세액(5~20만 원) + 지방교육세(기본세액의 25%) +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
- 문의 세무1과(666-2331)

**행정 민방공대피훈련**

- 일시 8. 23.(수) 14:00~14:20(20분간) • 장소 전 지역
- 내용 훈련경보 발령에 의한 주민대피

**행정 2023년도 민방위사이버 보충 1차 교육 실시**

- 기간 8. 1.(화)~9. 15.(금)
- 방법 홈페이지(www.kcmes.or.kr) 접속 또는 수성구청 홈페이지 내 민방위교육 배너 클릭
- 대상 2023년도 민방위 교육 미이수 민방위대원(3년 차 이상)
- 교육시간 3~4년 차(2시간), 5년 차 이상(1시간)
- 문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총괄과(666-2272)

**행정 2023 을지연습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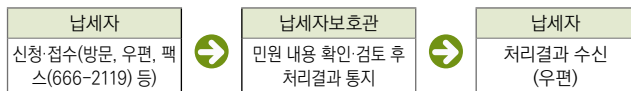
- 기간 8. 21.(월)~8. 24.(목)
- 참여 8개 기관, 업체(구청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행정 을지연습 실제훈련**

- 훈련명 다중 이용시설 테러 대비 훈련
- 일시 8. 22.(화) 14:00~15:00 ※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대구육상진흥센터
- 내용 테러 진압, 인명구조, 화재진압, 피해복구, 심폐소생술

**행정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
  -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
  - 지방세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등
- 민원처리 절차



※ 민원 신청서(수성구청 홈페이지 참조)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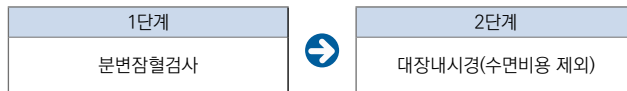
- 문의 기획예산과(666-4274)

**복지 가족돌봄지원 ‘행복수성Care’ 사업**

- 신청 ~12월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관내 거주 중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가족돌봄자 30가구 정도
- 내용 질병 및 장애가 있는 가족 돌봄으로 경제적·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한 청년 가족돌봄자에게 가족돌봄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문의 행복나눔과(666-4746)

**복지 2023년도 대장암(분변잠혈검사) 검진**

- 기간 50세 이상 남녀
- 검진비용 무료



- 내용
  - 이벤트 기간 내 대장암 검진을 받은 분 중 100명을 추첨하여 마사지건(3만 원 상당) 증정
  - 기간 : 7. 1.(토)~9. 30.(토) ※ 당첨자 발표 : 11월 중(우편 발송 예정)
  - 방법 : 이벤트 기간 내 대장암 검진 받을 시 자동 참여
  - 대상 : 대구·경북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 문의 국민건강보험 대구수성지사(666-6200)

**복지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신규 가입자 모집**

- 모집
  - 희망저축계좌 I : 8. 1.(화)~8. 11.(금)
  - 희망저축계좌 II : 8. 1.(화)~8. 23.(수)
-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 가구
- 내용
  - 희망저축계좌 I : 월 10만 원 저축 시 월 30만 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 월 10만 원 저축 시 월 10만 원 지원
- 문의 행복나눔과 자활지원팀(666-2666),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제11회 ‘수성구 올해의 장애인상’ 후보자 신청**

- 신청 8. 1.(화)~8. 31.(목)
- 대상 수성구 거주 등록장애인 및 봉사자(부문별 각 1명)
  - 모범장애인 부문 : 부단한 노력과 자립 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자활한 장애인
  - 장애인 봉사 부문 :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하고 봉사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
- 문의 복지정책과(666-2561)



# 편 / 집 / 후 / 기

## 김경민 위원장

주민 여러분, 2023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한 것이 불과 며칠 전 같은데 벌써 일 년의 반을 지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리 간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요즘입니다. 주민 여러분들도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즐겁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배광호 위원

올 해의 반환점이 되는 7월입니다. 올 초 마음먹었던 목표 이루셨나요? 아직 반년이 더 남았습니다. 남은 반년의 시간동안 이루고자 했던 목표 꼭 이루었으면 합니다. 수성구 의원들도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영숙 위원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여름의 문턱을 지나 7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름의 초록초록 무성함을 느끼면서 소중한 주민들의 의견도 늘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박새롬 위원

눈부신 여름 햇살 아름다운 초록의 향연들이 펼쳐지는 7월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행복도 싱그럽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여름을 위해 수성구의회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행운의 숫자 7로 시작하는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더위 속 흐르는 땀방울처럼 한 해의 절반동안 쌓인 근심을 털어내고 남은 반년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수성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SUSEONG GU COUNCIL DAEGU METROPOLITAN CITY



방/청/안/내

수성구의회의 회기 중에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신청하여 방청권을 받으신 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 회기 중 의회사무국에 신청하면 방청권 교부
- 단체 :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방청 협의